

**핀란드 –국가 보고서**

# 모든 금지 사항에 관한 법률 개혁 요약본

모든 신체적 체벌은 금지되며,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 세부 보고서 내용

**체벌의 적법성**

**가정**

신체적 체벌은 가정에서 금지된다. 1983아동 양육 및 면접권 제1조 제3항에 따르면 :”어린이는 이해받고 안전하게 사랑으로 다루어져 길러야 한다. 우울해지거나 신체적 체벌 및 다른 모욕감을 느끼도록 취급당하면 아니된다. 독립성있고 책임감 있는 성년으로서의 성장이 장려되고 지지되며 지원되어야 한다”. 형법상 “적법한 응징”으로, 부모 또는 기타 다른 활동에 필요한 경우에 행해진 가벼운 체벌은 처벌되지 않는다고 정한 규정은 1969년에 폐지되었다.

2007년 아동복지법에는 부모와 후견인은 1983아동 양육 및 면접권 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아동의 복리에 관한 책임(제2조)과 아동의 복지에 관한 예방적 요소로서 부모의 지원이 있어야 함(제3조)을 명시하고 있다.

### 학교

학교에서의 신체적 체벌은 1914년부터 금지되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1957년 초등학교법(the Act on Primary Schools 1957), 1985년 종합 중등학교법(the Act on Comprehensive Schools 1985)에서 사용되고 있다. 1998기본 교육법(the Basic Education Act 1998)이나 1998직업교육훈련법(, the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Act 1998) 및 1998고등학교법(the High School Act 1998)에도 체벌이 허용된다고 정하는 조항은 없다.

### 형법 제도

범죄 형으로서 신체적 처벌은 불법이다. 1889년 형법이나 1940년 미성년범죄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재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기관에서의 제재조치에서도 신체적 처벌은 불법이나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는 바는 없다.

### 특수교육(Alternative care)

1983아동 양육 및 면접권 법 및 2007년 아동복지법에서 정하는 특수 교육에서도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 Prevalence research

핀란드의 3,000이상의 13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경찰대학의 조사에 따르면, 거의 모든 부모들은 체벌이 금지됨을 알고 있으며 또한 체벌에 대하여도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1% 미만의 부모만이 목적을 가지고 체벌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1981년부터 2012년 사이에 대표적인 조사가 수행되었다. 신체적 체벌이 허용된다고 생각하는 부모는1981년에는 47%에서 2010년에는 17%, 2012년 조사에서는10%로 감소하였다. 그리고 2012년 조사에서는 97%의 부모가 신체적 처벌이 금지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나타났다.

 (Sariola, H. (2012), *Violence against children and child sexual abuse in Finland*, presentation given at the Central Union for Child Welfare, Helsinki 30 August 2012; Central Union for Child Welfare, 2012, *Attitudes to disciplinary violence*, Finland: Central Union for Child Welfare & Taloustutkimus Oy)

12세에서 16세까지의 학생 1,04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55.8 %의 학생이 “어린이는 신체적 체벌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밝혀졌고, 27%의 학생은 ”어린이는 가벼운 정도의 처벌(손바닥으로 맞는 것 등)은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나타났다. 그러나 65.8%는 ”부모가 가벼운 것이라도 신체적 처벌(손바닥으로 때리는 것)을 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87%의 학생들은 ”어린이는 어떤 종류의 폭행으로부터도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연구에서는 1998년에 행해진 연구결과와 비교하는 연구가 실시되었는데, 13,000 이상 12-14세의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988년의 경우, 약 1/4의 학생이 14살 이전에 손바닥으로 맞은 경험이 있고, 2/3이상의 학생이 머리카락을 잡힌 적이 있다고 하였다. 2008년의 연구에서는 10%가량이 손바닥으로 맞은 경험이 있고, 1/3의 학생이 머리카락을 잡힌 경험이 있다고 나타났다.

가벼운 폭행을 경험한 학생도 19898년 72%에서 2008년 32%로 감소하였고 심각한 폭행을 경험했다고 답한 학생도 8%에서 4%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명백하게 지난 20년 동안에 신체적인 처벌이 분명히 감소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p. 160). (Ellonen, N. Et al (2008), *Lasten ja nuorten väkivaltakokemukset. Tutkimus peruskoulun 6. - 9. luokan oppilaiden kokemasta väkivallasta,* Poliisiammattikorkeakoulun Raportteja 71/2008)

For research published more than ten years ago, see the research pages at [www.endcorporalpunishment.org](http://www.endcorporalpunishment.org).

**인권조약 기구의 권고**

### *아동의 권리에 대한 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 June 2011, CRC/C/FIN/CO/4 Advanced Unedited Version, Concluding observations on fourth report, paras. 5, 35 and 36)

“위원회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정책과 프로그램의 채택을 환영한다:

 “2010-2015년사이 신체적 체벌을 줄이려는 국가 실행 전략; ...”

 “위원회는 당국은 모든 신체적 처벌을 금지하는 법률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보장하도록 권고하며, 그 중에서도 어른과 아이들 사이에 있어서, 적절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홍보, 비 폭력적 형태의 훈육, 특별 지원이 요구되는 아동의 부모에 대한 특별한 관심 및 계속적인 감독, 자녀의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 에 대하여, 제도적인 인식을 통하여 해당 법률이 지켜지도록 한다.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16 October 2000, CRC/C/15/Add.132, Concluding observations on second report, paras. 39 and 40)

“비록 우리 국가가 세계적으로 아동에 대한 폭력을 금지한 두번째 국가이기는 하지만, 위원회는 아동의 폭행에 관한 사건에 염려를 하고 있으며, 특히 가정 내 성적학대에 관한 정보에 관하여 신경을 쓰고 있다“

“위원회는 또한 가정내 아동에 관한 폭행이 발생했을 시에 지체없이 이를 확인하고, 이를 가능한 초기에 대처하고 또한 예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방을 위한 아동 친화적인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아동과 함께 훈련하는 특별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는 등, 당국은 아동을 보호할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 사회적 권리의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ttee of Social Rights)

(2012. 1. 2011년 결정)

“지금까지의 위원회 결정에 변경사항은 없다.”

*사회적 권리의 유럽위원회*

(2007, Conclusions XVIII-1, vol.1)

1984년 아동의 후원 및 면접권법에는 어린이는 이해받고 안전하게 사랑으로 다루어져 길러야 한다. 우울해지거나 신체적 체벌 및 다른 모욕감을 느끼도록 취급당하면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다.

*Report prepared by the Global Initiative to End All Corporal Punishment of Children*

[*www.endcorporalpunishment.org*](http://www.endcorporalpunishment.org)*;* *info@endcorporalpunishment.org*

*July 2013*